

#1

진건과 호중 둘이 매우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호중과 진건이 동기이고 둘이 같이 촬영장에서 일을 하고 와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촬영장에서 둘 다 힘들었지만 진건이 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2에서도 나오지만 호중만 좋은 대우를 받고 진건은 안 좋은 시선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건은 나대고 발랄한 호중이 맘에 안 든다. 진건은 뭔가 시크하고 과묵한 태도가 하이엔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들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실은 비록 시궁창 같지만 그런 신념을 지켜야 진정한 예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진건을 바라봐주지 않는 세상 자체가 모두 호중 같아 보이는 것이다. 다 조잡하고 무식해 보인다. 하지만 호중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질투심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2

진건은 호중과 실장의 무식한 대화를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실장에 대해 궁금하긴 하다. 그래서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본 것이고 그 사진을 보면서 촬영장에서 자신을 그저 무서워 보인다고 평가한 실장을 경멸한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경멸할 처지는 되지 못한다. 결국 호중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자존심이 강한 진건은 호중의 호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3

진건이 연출과 호중이 대화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도 실장과 호중이 대화하는 모습과 겹쳐보인다. 진건은 그들을 싸잡아서 예술을 모르는 겉핥기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정작 자신은 촬영을 도와주러 온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러던 와중 한 스태프가 그를 외부인 취급하고 거기서 호중이 구제해준다. 이런 상황 자체가 진건에게는 정말 화나는 상황이고 진건은 스태프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한다. 호중은 진건이 화났는지도 모른다. 그저 호중은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호의를 베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진건은 호중의 이런 순수한 모습도 진절머리가 나고 자존심이 상한다. 촬영장에서 자신 혼자만 분리된 느낌이 들고 호중마저도 자신에게 잠시 가만 있으라고 하자 분노와 당황의 감정이 극에 달한다. 그렇게 약간의 패닉상태에 빠진 진건은 기어코 호중을 위협으로 내몰고 만다. 호중은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진건의 행동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이런 모습을 본 진건은 속으로는 매우 놀란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해온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진건을 관찰자의 시선에서 바라볼 뿐이다.

#4

고시원에 돌아와 진건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본다. 스스로는 이것을 생각안하는 것 자체가 프로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내적갈등을 일으킨다. 진건은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을 굳히려 한다.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호중에게 전화가 오고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호중의 부름에 나간다. 하지만 “호중을 동정해서, 죄책감이 들어서 나가는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나가려고 노력한다.

#5

호중은 지금도 진건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진건은 조마조마하면서도 태연한 척 한다. 그래서 괜히 카메라가 어떻게 됐는지 떠보기도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호중은 카메라를 대여한 것이었고 매우 고가의 카메라였기 때문에 엄청

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는 것을 진건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돈은 있냐고 물어본다. 돈이 없다는 말에 애 진짜 어떡하지 라는 일말의 죄책감이 든다. 그런데 갑자기 호중이 진건에 대한 얘기를 한다. 자신이 진건의 냉정함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그런 사고를 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얘기한다. 진건은 그저 흘려듣는다. 당연한 얘기니 말이다. 하지만 갑자기 호중이 돌변하여 묻는다. “근데 그거 진짜 너야?”라고 물어보는데 진건은 흠칫한다. 왜냐하면 진건은 이 질문을 “애가 진짜 내가 카메라 가방을 푼걸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중은 그저 진건의 예술에 대한 추구 방향에 대해 그것이 진정 너 자신이 맞냐는 질문을 한 것이다. 이 질문 자체도 진건에게는 매우 기분 나쁘다. 자신을 부정당하는 기분이기 때문이다. 호중의 마지막 말 “그냥 내가 볼 땐 이게 아무리 원해도 감당 못 하는 게 있나봐. 내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는 호중과 진건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다 호중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 팩트대로 진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한다.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들 때 호중이 그럼 고양이이라도 맡겨달라고 해서 결국 수락하고 만다.

#6

결국 약간의 죄책감 때문에 고양이 알려지가 있음에도 고양이를 데려온 진건은 다음날 아침에 고양이로 인해 난장판이 된 집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펴둑 차린다. 고양이가 호중의 저주라고 생각한 진건은 재빨리 호중의 카메라처럼 박살나지 않게 카메라부터 찾는다. 카메라를 찾고 우선 보호조치 시키고 그는 고양이를 팔아치워 카메라를 바꾸는데 사용하기로 한다.

#7

고양이를 팔기 전까지는 돈이 없으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촬영 관련 일에 나가지 못하는 진건은 알바 도중 드디어 분양 관련 문자를 받는다. 거래하려는 사람은 고양이 카페 사장이었고 그녀도 고양이를 사랑해서 분양받기 보다 고양이가 가게에 필요해서 분양받고 있는 중이다. 진건은 혹시나 모를까 현금거래를 요구한다. 그리고는 다시 카메라를 상기시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본다.

드디어 분양받는 사람과 만난 진건은 그녀에게서 빨리 돈을 얻어내고 싶다. 진건이 보기에는 여자가 뭔가 수상하다. 빨리 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가 갑자기 진건의 이름을 묻는 줄 알았는데 고양이의 이름을 물어본다. 진건은 고양이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뭔가 이름을 얘기해야 할 거 같아서 그는 호중의 이름을 좀 바꿔서 소중이라고 즉석에서 지어버린다. 여자가 보여달라하니까 점점 의심이 된다. 진건은 그래서 돈부터 달라고 하고 돈을 먼저 확인한다. 돈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이를 담은 상자를 다리 사이에 우선 끼워둔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띠용한다. 여자가 보기에 그는 매우 불안해보였고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진건은 그런 뜬금없는 질문에 어버버 댄다. 그는 그 스스로 느끼기에 이 고양이를 파는 행동이 무언가 켕기기 때문이다. 여자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진건은 무언가 찝찝하다.

#8-1,2

그렇게 재빨리 집으로 와 돈부터 확인하고 자신의 목적을 먼저 달성시킨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기 위해 집에 있는 고양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버리려 한다. 그는 이를 통해 이

제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쓰레기를 골목에 그냥 버리고 후련하게 가려 하지만 누군가 그를 붙잡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고 한 소리 듣는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모든 것을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흥분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뭔가 매끄럽지 않게 진건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

#9

카메라를 사고 자신도 이제 호중과 같이 큰 촬영을 맞게 되자 뭔가 의기양양해진 진건. 그는 자신이 너무 예술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에 여러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 사실 이것도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다 의도된 행동들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프로들은 시크하고 멋졌기 때문이다.

#10

진건은 촬영장에서 자신이 스태프에게 한 말이 너무 심했나 확인해본다. 그는 이 불편함이 프로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큰 에이전시에서 계약 제의를 받고 시크하게 답변을 한다. 하지만 답변을 하고보니 본성적으로 예전에 호중이 자신에게 호의를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이 생각난다. 진건은 그냥 호중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핑계로 호중을 인스타와 카톡에 검색해보지만 모든 게시물이나 프로필이 없어진 상태였다. 우유부단한 호중이라면 이렇지 않을 텐데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하지만 진건은 이런 것을 신경 안 쓰는 것이 프로의 인내심이라고 믿고 신경 안 쓰기로 한다.

#11

그렇게 호중에 대해 잊었지만 결국 계약하러 갔을 때 호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정말 큰일이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2

그렇게 엄청난 사실을 접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까지는 커버할 수 없던 진건의 마음이 깨져 버리고 만다. 이제는 자신이 살인자가 된 것 같은 느낌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 그는 애써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호중의 여동생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두려워 진다. 그는 두려움에 여동생과의 전화를 끊어버린다. 그리고 애써 교통사고였다고 합리화를 다시 하려하지만 호중이 술을 마시면서 했던 “이제 오토바이 타야지 뭐”라는 말과 에이전시 담당자의 “그만 두셨을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셨다고 들었는데...”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모든게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고 만다. 또한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공통되자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진건은 고양이이라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여자한테 전화를 건다. 하지만 고양이도 이미 죽었고 진건은 호중과 고양이의 죽음을 계속 연결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건은 고양이라도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에 무작정 거래했던 여자에게 전화를 한다. 여자는 그저 고양이 카페 사장이었고 반응은 당연히 황당하면서 냉랭했다. 진건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그냥 이 상황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연신 죄송하다고 밖에 못한다. 전화를 끊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진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계약을 그래서 할거냐는 문자가 오고 진건은 바로 잡는 선택을 한다.

#13

진건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찰이다.

고양이가 카메라를 목에 매고 있는 사진 : 이 사진은 진건이 고양이와 카메라를 주객전도 시킨 사진이다. 원래의 진건에게는 카메라가 목적이고 고양이가 그에 대한 수단이었다. 고양이 뿐만 아니라 호중, 진건이 무시했던 스태프와 실장, 연출 등 고양이가 이런 모든 목적이 되어야 마땅한 대상들을 가르킨다. 진건은 카메라를 갖기 위해 커리어를 쌓고 예술적 명성을 얻기 위해 그렇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달려왔지만 이 사진을 통해 카메라는 결국 고양이의 목에 걸린 수단이였음을 이 사진을 통해 보여주하고자 한다.